기도의 결승테이프

(롬12:14~21)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의 결승테이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기도의 결승테이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의 골인지점 이 되겠지요.

1988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나라 마라톤 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황영조 선수입니다.
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이 황영조 선수는 사실은 바르셀로나 올림픽 이전에 마라톤을 완주한 경험이 2번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마라톤 선수가 아니었어요.
5000m,10000m 장거리 육상선수였는데, 그래서 마라톤 할 때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지요?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가 뭐하는 사람이냐 하면, 마라톤이 주경기이고 우리나라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가 있을 때 같이 뛰어 주면서 맞수가 될 만한 다른 나라 선수들을 견제하고, 우리나라 선수의 페이스를 올려주고 적정속도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참전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한 30km 정도까지 페이스를 유지하다 떨어져 나오면 되는 거예요, 완주 안 해도 돼

요.
그렇게 뛰던 사람이, 일본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페이스메이커로 출전을 했는데, 그리고 그 전까지 한 번도 완주해 본 적이 없는데, 이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했을 뿐만 아니라 3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완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연습으로든 실전에서든.
그런데 여기서 페이스메이커로 출전했다가 완주하게 되면서, 바르셀로나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길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에도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냥 중도에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기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기도는, 완주하는 기도라야 됩니다.
그게, 100m 달리는 것처럼 결승테이프까지의 거리가 짧을 수도 있고, 5000m처럼 좀 길 수도 있고, 마라톤처럼 아주아주 길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완주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100m 거리를 짧게 달리는 것일지라도 100m 달리는 선수들 중에서도 완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다리가 삐끗한다든지 달리는 중에 옆의 사람을 쳐서 실격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러나 마라톤과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주하는 기도.
그러면 기도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골인지점을 알아야 됩니다.
결승테이프가 드리워져 있는 골인지점을 알아야 완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골인지점은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 관한 얘기를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상에서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다 가짜다, 그건 신앙인의 기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도 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나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이 지상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지상의 삶을 위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뭘 기도하는 겁니까?
복음에 의해서 내게 주어진 약속들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 뭡니까? 천국과 하나님이에요.
천국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 주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약속일뿐 내 것이 아직 안된 상태에요.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돼 주신다는 약속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만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사실차원을 넘어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건 뭐가 다른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인도에서 일어난 일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사람 다 몰라도,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이지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큰~일로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현실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골리앗 앞에서의 사울 왕과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울 왕도 알고, 다윗도 압니다.
그리고 둘 다 선민이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현실이고, 사울 왕에게는 사실의 차원에 그치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농도가 짙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말로만 사실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수중에 내 손에 현찰, 예를 들어 10억을 들고 있을 때의 기쁨과 마찬가지로, 천국을 그런 현실감 안에서 느끼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나 천국에 대해 느끼는 현실감은, 어느 정도까지라야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현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지 이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막연한 상태로 성경이 그냥 우리를 무책임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해지고 천국의 사실이 나의 현실, 손에 돈이 가득 있는 통장을 쥘 때의 기쁨처럼 천국이 내게 실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기도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과제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천국이 농도 깊게 현실로

느껴질 수 있다고 아는 것이냐 이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명령형의 말씀들입니다.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형의 말씀들이 로마서에서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 이런 명령형에 관한 명령형의 말씀들이 나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무단히 비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회사에서 상사가 나를 박해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그를 축복하라는 얘기에요.
근데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장님이 나를 죽도록 미워했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한 3년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을 위해 기도할 때 꼭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에요.
원수 아니라, 원수 아닌 사람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맨날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명령형의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은 명령형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즉, 우리의 행위를 요청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에 드는, 그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전달되는 모든 명령형의 말씀들,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행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냥 그 말씀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맞서서 같이 미워하고 대항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행위로 옮겨 오려고 그러면 못해요, 우리가.
이것은 또 신앙적으로 올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이렇게 옮겨 오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언급했던 모~든 믿음에 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그 순간에는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성경에서 명령형의 말씀을 그대로 무작위로 그냥,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는 그런 행위적 의지와 결단을 갖고 대할 때에, 또 다른 율법주위에 빠져 버리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냥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그냥 사랑하라고 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목사님 스스로가 전혀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얘기에요.
원수를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믿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이 나의 교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실제의 아버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갖고 있느냐?
천국이 얼마나 실제의, 이 세상에서 교인이 갖고 있는 사업보다도 더 현실적인 기업으로서, 사업보다 앞서서 현실로 느껴지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 사랑이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은, 이런 모든 명령형의 말씀들은 천국이 마음에서 현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실제 친밀감 안에서 확인 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이루어 질 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행위를 자꾸 행동으로 옮기라고 해 버리면, 그냥 율법주위에 빠져 버리는 거예요.
외식에 빠져 버려요, 위선에 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런 말씀을 그대로 행위로 옮기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 하면, 이제는 아예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이런 말씀들은 명령형의 말씀들은 다~ 뒤로 제쳐버립니다.
그리고 축복에 관한 말씀만 골라냅니다, 앞뒤 다 끊어내고.
그래서 성인들에나 가능한 얘기에요.
프란체스코 같은 그런 성인들에게나 가능하고, 사도 바울에게나 가능한, 어거스틴의 회심 이

후에 그 인격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창고에 처박아 버리고 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명령형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 명령형의 말씀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완주를 알려주는 결승 테이프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형의 말씀들이 결승테이프입니다.
우리 기도라는 마라톤의 결승 테이프라는 거예요, 그 지점까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으면, 마음에서 저절로 원수 사랑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천국이 현실로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원수에 대해서 우리 마음 속에 미움을 빼버리려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라야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이는 내 사업체보다도 먼저 내 기업으로 내 몫으로 느껴질 때라야 원수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그런 현실로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다윗에게서 만군의 주 여호와로 느껴졌듯이, 그렇게 친밀감 안에서 느껴지는 길이 기도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고 천국이 내 현실이 되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도 하느냐?
삶에서 내게 원수가 생겼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목표를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축복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을 겨냥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십자가 붙잡고 그 사람에 대해서 죽고, 그 사람 때문에 신경 쓰고 그 원수 때문에 마음 빼앗겼던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죽으므로 다 회수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천국이 친밀하게 느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이 많~아지고 농도가 짙어지게 될 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원수가 원수로 느껴지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이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는 것의 최고가 뭡니까?
나처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가 나오는 마음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 복, 축복을 하는 방법이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축복의 최고의 축복이지요.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은 스테반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돌로 찍어 죽이는 거예요, 무단히 죄 없는 사람을.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고, 스테판이라는 말 자체가 스테파노스 헬라이름 아닙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어요, 죄도 없는데.
그런데도 하늘이 보이면서,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면서,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아무리 용서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친밀함의 농도가 짙어지기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짙어지길 기다리고, 천국이 제1현실이 되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어디까지 기도해야 완주가 되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게서 무엇인가를 뺏어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에요.
계속해서 부장님이 나를 박해하잖아요?
기도의 결승테이프, 골인지점을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저 부장이 내 마음 속에 미워지지 않을 때까지, 나는 기도해.

그럼 기도하는 시간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천국이 내 제1현실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함의 농도가 짙어지고 짙어져서, 어느 순간 딱 되면 부장이 안 미워지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원수가 그렇게 미웠는데, 내가 자기가 말하는 그런 식의 나쁜 놈이 아닌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원수 위치에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의 비난이 나의 실제 악함보다 훨씬 더 미화되어 있고, 훨씬 더 순화되어 있다는 걸 느낄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의 모든 말씀들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뭘 느끼게 되나 하면,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의 농도가 굉장히 옅어졌다. 천국이 단지 사실일 뿐이지, 천국이 있다는 걸 내가 말로만 고백할 뿐이지, 진짜 천국이 나의 현실로 내 기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형의 말씀들이 내게서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그래요?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될 때 천국이 내 기업이 되고, 내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천국으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친밀감 안에서 내가 충만해질 때, 그 어떤 박해자도 그 어떤 원수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돈? 내 재산? 내 명예? 나의 승진 기회?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농도가 짙어질 때,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인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떤 박해자도 어떤 원수도 내게서 빼앗아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농도가 짙어진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박해자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자체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친밀감의 농도가 짙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결승 테이프라 이겁니다.
저절로 원수가 사랑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농도가 짙어져 가는 겁니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저께 양자구도를 품은 삼자구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함 안에서 괄호 안에 묶여있습니다, 제로원으로.
그 상태에서 제 3자를 만나면, 그 3자로부터 나는 얻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에게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면 좋을 것인가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사장님을 만나도, 내가 사장님으로부터 뭘 얻을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기도함을 통해서, 농도가 짙어진 하늘나라가 내게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아니 사장에게서 내가 얻을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을 만나도, 내가 사장님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나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사장님이 나한테 월급을 올려주고 승진을 시켜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크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까짓 건 관심을 안 두게 되고, 어떡하든지 사장님을 보면서 저 사장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주면 좋을 걸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하나님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장님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면 좋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아하실까.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얘기는, 그 사람에게만 행동과 말에 초점을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속마음으로는 계산적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유익을 저 사람에게 뺏을 수 있을까, 뽑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형의 말씀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서 그 친밀함의 농도가 수준에 찼을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령의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농도가 짙어지고 천국의 현실감이 차오르는 겁니다, 충만할 때까지.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내가 당장 이룰 수 없다고 창고에 처넣지 말고, 이 말씀을 이룰 수 없으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의 농도가 무~지 하게 얕구나, 천국이 나의 기업이 되기에는 너무나 사실에만 머물러 있고 현실이 아니구나.
현실은 가정의 문제가 현실이고, 사업의 문제가 현실이고, 직장의 문제가 현실인데 이것보다 앞설 때까지, 앞서서 현실 얘기가 될 때까지 기도하자.

기도의 완주테이프, 결승테이프가 바로, 명령형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모든 성경의 앞으로 나오게 될 명령형의 말씀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도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모든 명령의 말씀들이 우리의 기도가 도달해야 될, 결승테이프가 드리워져 있는 골인지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성인들에게나 겨우 가능할 것 같은 성경의 모든 명령형의 말씀들을 기도의 골인지점으로 삼고 기도함을 통하여, 복음 속에 약속 되어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천국이 나의 기업됨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명령형의 말씀들이 우리에게서 지켜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